

여름 추억 쏟아지는 목포로 GO~ GO~

시, 즐길거리·먹거리 여름 휴가지 홍보

대반동 백사장 300m 해상위 케이블카서 고하도·다도해 풍광 한눈에 18일까지 유람선 선상 불꽃투어... 낙지·홍어·갈치·병어 등 해산물 풍성

아직 올여름 휴가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낭만 가득한' 목포는 어떨까.

목포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유로운 바다 풍경과 빛으로 가득한 야경, 맛있는 음식이 매력적인 목포 홍보에 나섰다.

목포에서 여유로운 바다 풍경을 느끼고 싶다면 대반동 방문을 추천한다.

대반동 백사장은 300m 정도의 아담한 모래사장이지만 해상위로 지나가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용을 닮은 섬 고하도, 다도해로 오가는 배들의 모습까지 목포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풍광을 감상한 후에는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스릴을 느끼고 대반동의 맛집, 카페 투어까지 즐겨보기를 권한다.

바다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면 외달도에서의 섬

캉스가 기다리고 있다.

외달도는 목포에서 여객선으로 6km 정도 떨어진 섬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다. 고운 모래톱의 해수욕장과 맑은 바닷물을 끌어 조성한 해수풀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탁 트인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산책로도 조성돼 있다.

한옥 민박, 마을 민박 등 숙박시설도 있어 조용하게 머무르며 휴양할 수 있는 섬이다.

목포는 또한 빛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야경의 도시이다. 여름철 무더위를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씻어보자.

목포 대표 여행지인 평화광장에서는 저녁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춤추는 바다 분수를 볼 수 있다. 춤추는 바다 분수는 신나는 음악과 워터스크린, 레이저, 초대형 바다 분수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



목포시가 낭만과 맛있는 음식 가득한 목포를 최고의 여름휴가지로 홍보하고 있다. 목포대교를 배경으로 한 목포해상케이블카 야경. <목포시 제공>

관을 연출한다.

아름다운 유달산 야경과 낭만적인 목포대교의 일몰, 끝없이 펼쳐진 다도해, 고하도의 해안을 동시에 보고 싶다면 삼학도 크루즈를 타보자.

여름휴가 기간인 오는 18일까지 매일 저녁 선상 불꽃투어도 진행하니 낭만적인 유람선을 타며 환상적인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구미를 당기는 맛있는 음식도 목포를 대표한다. 명실상부 맛의 수도답게 목포에서는 어디를 가도 입맛 당기는 메뉴가 가득해 맛집 여행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하다.

목포가 맛으로 유명한 이유는 서남해안의 다도해와 자진 갯벌에서 나는 갯가지 해산물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목포에는 낙지·홍어·갈치·병어·우럭·준치·민어·

아귀·꽃게가 유명하다.

이런 9미(味미) 수산물은 홍어삼합, 세발낙지, 민어회, 꽃게무침, 갈치조림, 우럭간국, 병어회·찜, 아귀탕·찜, 준치무침 등으로 즐길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를 찾으면 목포만의 색다른 맛과 맛, 낭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며 "올여름 최고의 휴가지 목포가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 '다자녀 행복카드' 혜택 풍성

대형 백화점·놀이공원·베이커리·병원 등 할인

영광군이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대상 기준을 확대(태아 포함)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고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전남 도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인 사업이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 혜택으로는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5% 할인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리터당 50원 할인 ▲카페/베이커리 전문점(스타벅스, 커피빈, 파스쿠찌 등) 5% 할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에버랜드 등) ▲학원업종 7% 및 병원(병원·의원·한의원)업종 5% 할인 ▲다자녀 행복카드 협력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이 다.

병·의원,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등 모든 제

조·서비스업이 가맹점 대상에 포함되며 인증스티커 부착, 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규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영광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출산과 양육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지역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완도 명사십리에선 레저스포츠 무료로 씩씩~

카약·래프팅·서프 보드·요트 등 18일까지 교육·체험 프로그램

완도군이 오는 18일까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해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레저스포츠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양 레저스포츠 종목은 카약(1-2인승), 래프팅(6인승), 서프 보드(1인승), 당기 요트(1인승), 요트 항해(10인승) 등이다. 서프 보드와 당기 요트는 경력자에 한 해 체험이 가능하다.

초등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카약(2인승), 래프팅,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참여는 당일 선착순 예약제다.

체험 장소는 요트의 경우 명사방파제 인근, 무동력 레저 기구 체험 장소는 이벤트 광장 앞 등이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종목의 해양 레저 스포츠를 무료로 즐기고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도서관에서 책 읽고 영화 보며 '슬기로운 여름나기'

해남군립도서관 하루 870명 이용 28개 강좌·독서교실 등 운영

한여름 무더위 속에도 해남군립도서관을 찾는 가족단위 이용객들 증가하고 있다. 더위를 피하는 피서지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군립도서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계층이 찾는 곳으로 1일 평균 870명 이용하고 있다. <사진>

2층 문화의집에서는 여름학기 18강좌 24개반 개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으며, 3층 어린이자료실에서는 영화감상, 동화구연,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4층과 5층 종합자료실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 한모씨는 "무더위에 이만한 장소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며 "도서관이 가성비 좋은 피서지"라고 말했다.

해남군립도서관 관계자는 "노심 속의 썬더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나무그늘에서 책을 읽듯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립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7월30일부터 8월1일까지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했다. 독서교실은 올해로 109회를 맞이했다.

주제독서는 '고양이가 필요해' 독서를 선정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만들기, 토론 활동, 글쓰기 등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참가 어린이의 출석과 수업 태도, 글쓰기, 토론 활동 등으로 종합평가를 했다.

종합평가 결과 해남동초등학교 3학년 양호운 어린이가 최우수상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우수상은 관나연(해남동초 4), 장려상 장은재(해남동초 4) 어린이가 각각 수상했다.

선정된 우수작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도서 주민 여객선 이용료 전액 지원

화산면 상·중·하마도, 송지면 어불도...하루 이용객 1300명 혜택

해남군이 관내 도서 주민들의 여객선 이용료를 전액 지원한다.

해남군에 따르면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도선은 화산면 상·중·하마도와 송지면 어불도에 각각 삼마호와 어불호가 운항하고 있으며, 화원면 시하도에 민간 여객선사가 운항하고 있다.

군은 이들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주민들은 승선시 명단을 작성하면 해당 요금을 도선 운영위원회와 선사로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부터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전액 무료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요금 지원은 해당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해당된다.

삼마호와 어불호는 한달 평균 이용객이 800~1300여명이며, 외부인의 요금은 5000원이다.



도선 삼마호.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수산 지원·재해 등 현안 논의

수산단체연합회와 정책 간담회

진도군이 최근 수산단체연합회 회의실에서 진도군수산단체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들과 수산단체연합회(회장 이광희) 회원, 12개 직능별 단체회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당면 현안과 주요 협조사항과 홍보사항, 질의·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수산지원과 업무 추진전략 ▲해양수산사업 지원과 추진방향 ▲태풍 등 수산재해 대비 ▲해양환경 보호활동 강화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산단체연합회는 전복산업 침체, 인건비·경영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에 대해 군의 적



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수산인들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수산인

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영광군, 요식업소 국산김치 사용 장려

식자재 구입비 연 1회 최대 25만원 지원...읍·면사무소에 신청

영광군이 국산김치 사용 업소 확산을 위해 김치 식자재 구입비 부담을 덜어준다.

영광군은 요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음식점 가운데 국산김치 사용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 학교, 공공기관이다.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식자재와 김치 완제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식자재 구입 비용은 업체 한 곳당 연 1회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영광에선 212곳이 국산김치 자율 표시제 업소로 지정받았다.

미인증 업소가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신청 자격 조건과 사업비 조기 소진을 감안해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